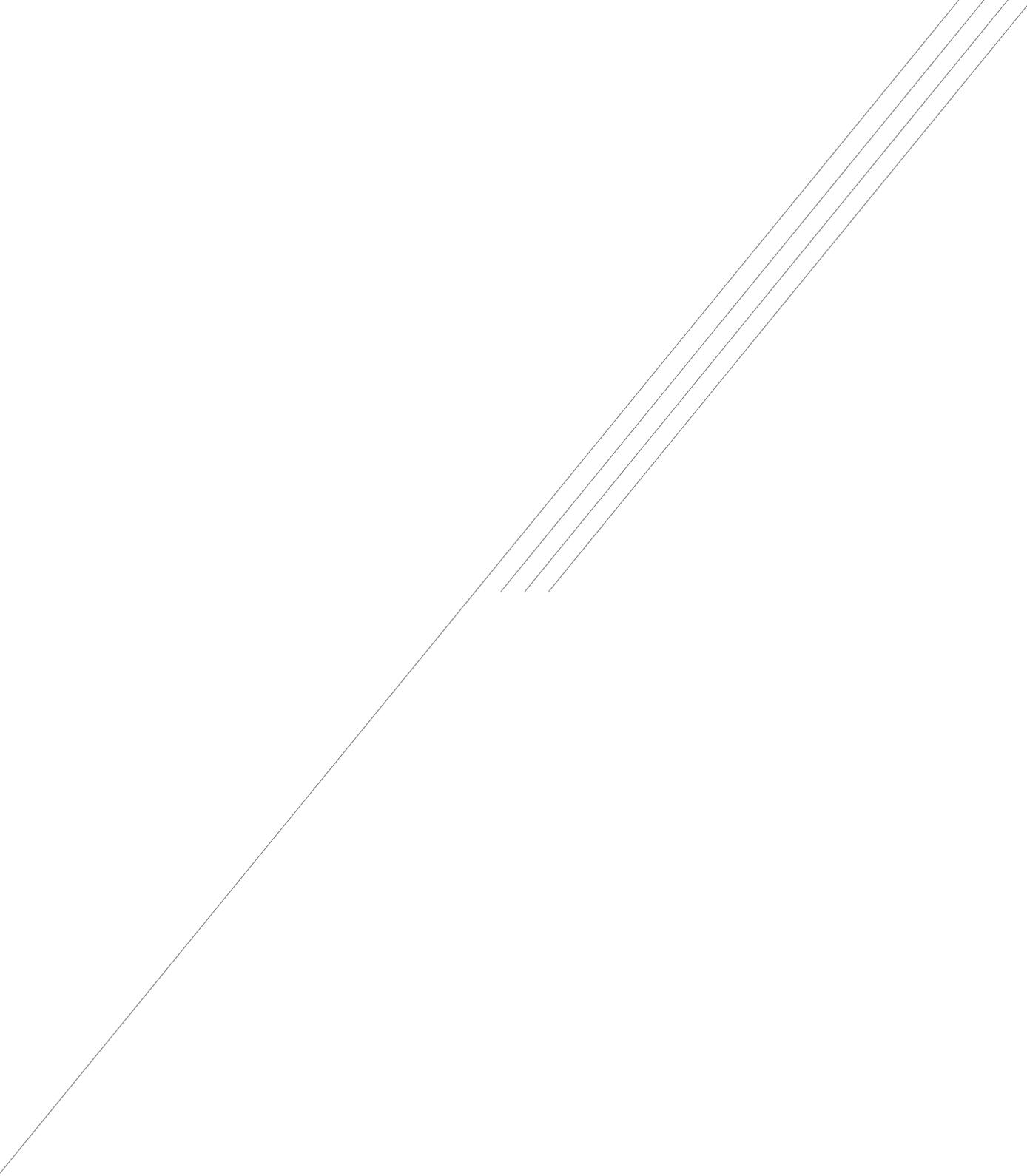


NYPI YOUTH REPORT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Vol.20 _ 2011. 10. 31 | 최인재 연구위원 ●



NYPI YOUTH REPORT

Vol.20 _ 2011. 10. 31 | www.nypi.re.kr

발행일 2011. 10. 31

발행인 이재연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주 소 서울시 서초구 태봉로 114 교총빌딩 9/10층

전 화 2188-8800

팩 스 2188-8869

인 쇄 양동문화사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2011. 10. 31 | 최인재 연구위원 ●

CONTENTS

1.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신체활동 부족 심화 _ 03
2. 자신의 체형 불만족 57.6%, 체중감소 시도 46.7%, 방법은 주로 절식 _ 04
3. 청소년 1/4이 아침식사 주 2일 이하, 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면 부족 심각 _ 06
 4. 중·고등학생의 흡연 경험률 17.6%, 음주 경험률 34.3% _ 08
5. 여학생과 교급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및 적대감 수준이 높음 _ 10
6.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1위는 학업문제, 교급이 높아질수록 심화 _ 12
7.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및 정서조절 수준이 더 높음 _ 14
8.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학교수업, 친구관계, 학교생활은 여학생이 더 높음 _ 15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 조사

조사개요

○ 조사목적

- ▶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건강(신체, 심리) 실태를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여 더 나은 청소년정책을 만들기 위함

○ 조사지역 및 대상

- ▶ 전국 시/도 (제주도 제외)
- ▶ 전국의 초·중·고등학생 총 9,844명 (초등학생 2,657명, 중학생 3,254명, 고등학생 3,933명) 설문조사

○ 조사방법

-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집단 면접조사
- ▶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집단면접설문조사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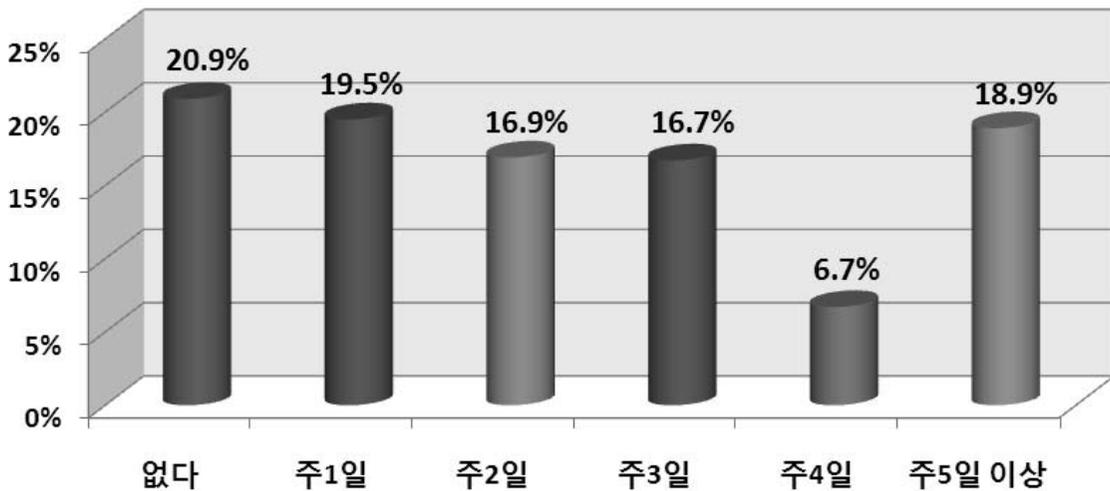
○ 조사기간

- ▶ 2010년 6월 1일 ~ 7월 15일

* 본 조사의 설문지, 코드북, 데이터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데이터아카이브홈페이지 (<http://archive.nypi.re.kr>)에서 2012년 1월부터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1.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교급이 높아질수록 청소년신체활동 부족 심화

- 신체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일주일 동안 몸에 땀이 날 정도로 신체활동(운동)을 30분 이상 한 날은 며칠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 하루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 중 20.9%로 나타났으며,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한 응답률은 5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남학생(43.7%)보다는 여학생(71.6%)들이 신체활동 일수가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았으며, 교급별 비교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신체활동 부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었음(초등학생: 38.6%, 중학생: 55.8%, 고등학생: 71.1%).



【그림 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표 1】 최근 일주일간 30분 이상 신체활동 일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없다	주1일	주2일	주3일	주4일	주5일 이상	무응답
전체		100(9,488)	20.9	19.5	16.9	16.7	6.7	18.9	0.4
성별	남자	100(5,061)	10.0	16.5	17.2	19.6	9.2	27.2	0.3
	여자	100(4,783)	32.4	22.7	16.5	13.7	4.0	10.2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9	17.3	14.4	19.0	10.2	31.8	0.5
	중학교	100(3,254)	20.6	18.1	17.1	18.7	6.9	18.3	0.3
	고등학교	100(3,933)	30.5	22.2	18.4	13.5	4.2	10.8	0.4

주 1) 표 내용의 단위는 %임. 이하 동일, 2) 무응답은 그림에서 표기를 제외함.

2. 자신의 체형 불만족 57.6%, 체중감소 시도 46.7%, 방법은 주로 절식

- 자신의 체형에 대한 만족도를 보면, ‘불만족한다’는 응답률이 57.6%로 ‘만족한다’는 응답률 40.7%보다 16.9%p 더 높았음.
- 성별에 따른 응답결과를 보면, 여학생들의 불만족 응답률(66.1%)이 남학생들의 불만족 응답률(49.7%)보다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급별 비교에서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 수준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불만족 응답률-초등학생: 35%, 중학생: 59%, 고등학생: 71.7%).
- “최근 1년간 몸무게를 줄이려고 노력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6.7%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음. 특히 여학생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59.1%(남학생 34.9%)가 체중감소를 시도한 적이 있었다고 응답함.
- 체중 감소 방법을 보면, ‘식사량을 줄임(73.8%)’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규칙적인 운동(68.0%)’, ‘원푸드 다이어트(포도, 달걀, 우유, 감자 등 한 가지 음식만을 먹는 다이어트)(9.6%)’, ‘단식(5.7%)’ 순으로 나타남.
- 비록 소수 응답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방법인 ‘식사 후 구토’를 하는 경우나, ‘의사처방 없이 살 빼는 약을 먹는다’의 경우도 각각 1.8%, 1.1%의 응답률을 나타냄.
-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그리고 교급이 높아질수록 단식, ‘의사 처방 없이 약물 복용’, ‘식사 후 구토’ 등의 건강을 해칠 위험이 큰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최근 1년간 시도했던 체중 감소 방법

응답자의 특성		전체 (빈도)	식사량을 줄임	규칙적인 운동	원푸드 다이어트	단식 (24시간 이상)	의사 처방 받아 약 복용	식사 후 구토	의사 처방 없이 약복용
전체		100(9,884)	73.8	68.0	9.6	5.7	2.0	1.8	1.1
성별	남자	100(5,061)	64.3	74.9	7.8	4.2	2.0	1.2	0.7
	여자	100(4,783)	79.8	63.7	10.7	6.7	2.1	2.2	1.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9.8	79.9	11.0	2.3	2.2	1.3	0.8
	중학교	100(3,254)	70.9	68.1	6.6	5.5	2.3	1.3	0.9
	고등학교	100(3,933)	83.9	61.3	11.0	7.8	1.8	2.6	1.5

주 1) 복수 응답 결과임 2) 기타 및 무응답은 제시하지 않았음.

3. 청소년 1/4이 아침식사 주 2일 이하, 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면 부족 심각

- 청소년들의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수를 보면, 전체 응답자 중 23.3%가 주 2일 이하라고 응답하였음.
-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주 2일 이하의 아침식사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초등학교: 16.5%, 중학교: 23.2%, 고등학교: 28.0%), 가족구성별 분석결과 양부모 가정보다는 조손 가정이 조손 가정보다는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주 2일 이하의 아침식사 비율이 더 높았음(한부모 가정: 39.7%, 조손가정: 33.7%, 양부모 가정: 20.8%).
- 수면의 경우 전체 응답자중 47.8%가 최근 일주일간의 평균 수면시간이 6~8시간 사이라고 응답하였음. 고등학생의 경우는 과반수이상(56.9%)이 6시간 미만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고등학생들의 69.1%가 수면 부족을 보고하였음.

【표 3】 최근 일주일간 아침식사 일 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아침 식사를 하지 않음	주1~2일	주3~5일	주6~7일	무응답
전체		100(9,844)	11.1	12.2	16.2	57.9	2.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8	10.7	13.6	64.1	5.8
	중학교	100(3,254)	10.5	12.7	16.1	58.8	1.9
	고등학교	100(3,933)	15.2	12.8	17.9	53.0	1.1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9.7	11.1	16.2	60.5	2.4
	한부모가정	100(952)	20.2	19.5	16.7	41.5	2.1
	조손가정	100(163)	20.2	13.5	12.3	47.9	6.1

【표 4】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수면 시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5시간 미만	5~6시간 미만	6~7시간 미만	7~8시간 미만	8~9시간 미만	9시간 이상	무응답
전체		100(9,844)	9.8	23.3	24.3	23.5	11.9	6.9	0.2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3.4	6.4	13.6	31.9	27.1	17.2	0.4
	중학교	100(3,254)	5.2	18.1	30.1	31.4	10.2	4.8	0.2
	고등학교	100(3,933)	17.8	39.1	26.8	11.4	2.9	1.8	0.1

【표 5】 자신의 수면시간 대비 피로회복 도움 정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충분하지 않음	별로 충분하지 않음	대체로 충분함	매우 충분함	무응답
전체		100(9,844)	15.1	39.5	34.0	10.8	0.6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6.7	26.1	41.4	24.2	1.6
	중학교	100(3,254)	12.9	41.9	36.6	8.3	0.3
	고등학교	100(3,933)	22.5	46.6	26.8	3.9	0.2

4. 중·고등학생의 흡연 경험률 17.6%, 음주 경험률 34.3%

- 흡연과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13.6%와 28.7%로 나타났다(초등학생-흡연 2.0%, 음주 9.7%; 중학생-흡연 12.6%, 음주 19.7%; 고등학생-흡연 22.2%, 음주 49.0%).
- 교급별 및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흡연과 음주 경험이 훨씬 많았으며, 교급이 높아질수록 흡연과 음주 경험률이 더 높았음. 또한 고등학생의 경우 일반계고보다는 전문계고 청소년의 흡연 및 음주 경험률이 더 높았음.

【표 6】 흡연 및 음주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흡연			음주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00(9,844)	13.6	86.0	0.4	28.7	70.7	0.6
성별	남자	100(5,061)	19.8	79.8	0.4	31.2	68.0	0.8
	여자	100(4,783)	7.0	92.6	0.3	26.1	73.5	0.4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2.0	97.1	0.9	9.7	89.0	1.2
	중학교	100(3,254)	12.6	87.2	0.2	19.7	79.8	0.5
	고등학교	100(3,933)	22.2	77.6	0.2	49.0	50.8	0.2
가족구성	양부모가정	100(8,411)	12.2	87.4	0.3	27.3	72.3	0.4
	한부모가정	100(952)	23.6	76.2	0.2	41.0	58.1	0.9
	조손가정	100(163)	16.6	82.2	1.2	30.7	66.9	2.5

【표 7】 교급별 · 성별 · 계열에 따른 흡연 및 음주 경험 여부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흡연			음주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경험 있음	경험 없음	무응답
전체			100(9,844)	13.6	86.0	0.4	28.7	70.7	0.6
교 급 별 · 성 별 · 계 열 별	초등 학교	남자	100(1,345)	3.3	95.8	0.9	12.6	85.9	1.6
		여자	100(1,312)	0.8	98.4	0.8	6.9	92.2	0.9
		합계	100(2,657)	2.0	97.1	0.9	9.7	89.0	1.2
	중학교	남자	100(1,712)	17.1	82.5	0.4	21.4	77.9	0.7
		여자	100(1,542)	7.6	92.4	0.0	17.8	81.9	0.3
		합계	100(3,254)	12.6	87.2	0.2	19.7	79.8	0.5
	고등 학교	남자	100(2,004)	33.1	66.7	0.1	52.0	47.7	0.2
		여자	100(1,929)	10.8	88.9	0.3	45.8	54.0	0.2
		합계	100(3,933)	22.2	77.6	0.2	49.0	50.8	0.2
	일반계고	남자	100(1,396)	26.9	73.0	0.1	48.3	51.6	0.1
		여자	100(1,418)	7.2	92.5	0.4	41.0	58.8	0.2
		합계	100(2,814)	17.1	82.8	0.3	44.7	55.2	0.2
	전문계고	남자	100(608)	47.4	52.3	0.3	60.7	38.8	0.5
		여자	100(511)	20.9	79.1	0.0	59.3	40.7	0.0
		합계	100(1,119)	34.2	65.7	0.2	60.0	39.8	0.3

5. 여학생과 교급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및 적대감 수준이 높음

- 개인 내(內) 부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전체 평균을 보면, 우울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불안감, 적대감 순으로 나타났음.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우울감, 불안감 및 적대감 등 모든 요인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즉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는데, 부적응적 요인 전체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음($t=-13.552, p<.001$).
- 교급별 비교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개인 내 부적응적 심리요인 모두 교급이 높아질수록 우울, 불안 및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부적응적 요인 전체에서도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음($F=313.507, p<.001$). 사후 검증결과를 보면 고등학교가 중학교보다 더 높았고, 중학교는 초등학교보다 더 높았음.
- 가족구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응적 요인 전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사후 검증결과 한부모 가정 청소년이 양부모 가정 청소년들보다 부적응적 요인 평균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음.

【표 8】 개인 내(内) 부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우울감		불안감		적대감		부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1.55 (0.739)	-19,068 ***	1.42 (0.590)	-13,103 **	1.33 (0.585)	-3,984 ***	1.42 (0.526)	-13,552 ***
	여자 (n=4,783)	1.82 (0.739)		1.59 (0.669)		1.38 (0.618)		1.58 (0.586)	
교급별	초등학교 (n=2,657)	1.39 (0.590)	492,181 *** (ab, ac, bc)	1.31 (0.520)	237,826 *** (ab, ac, bc)	1.22 (0.501)	96,952 *** (ab, ac)	1.29 (0.460)	313,507 *** (ab, ac, bc)
	중학교 (n=3,254)	1.64 (0.701)		1.49 (0.642)		1.38 (0.642)		1.49 (0.579)	
	고등학교 (n=3,933)	1.92 (0.727)		1.64 (0.664)		1.42 (0.616)		1.64 (0.566)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1.67 (0.707)	19,543 *** (gh)	1.50 (0.730)	4,923 ** (gh)	1.33 (0.717)	5,006 ** (gh)	1.49 (0.550)	10,393 *** (gh)
	한부모 가정 (n=952)	1.83 (0.750)		1.56 (0.682)		1.42 (0.672)		1.58 (0.598)	
	조손가정 (n=163)	1.69 (0.750)		1.56 (0.699)		1.37 (0.600)		1.53 (0.584)	
전체 M(SD)		1.68(0.717)		1.50(0.635)		1.35(0.602)		1.50(0.561)	

p<.01,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6.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 1위는 학업문제, 교급이 높아질수록 심화

- 청소년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학업문제가 4점 리커트 척도 중 2.74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진로문제(2.27점), 외모(2.17점), 부모님과의 관계(2.13점) 순 이었음.
- 성별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점수를 보였고, 교급별에서는 교급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거주지에서는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광역시나,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더 높았음.

【표 9】 개인 내(內) 스트레스 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업 문제		진로 문제		외모		부모와의 관계		스트레스(전체)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57 (1.151)	-15.292***	2.10 (1.140)	-15.195***	1.91 (0.963)	-27.832***	2.06 (0.988)	-7.222***	1.73 (0.542)	-20.385***				
	여자 (n=4,783)	2.91 (1.071)		2.46 (1.171)		2.45 (0.982)		2.20 (0.974)		1.96 (0.548)					
교급별	초등학교 (n=2,657)	2.05 (1.104)	846.686***	1.35 (0.767)	1983.686***	1.66 (0.934)	605.834***	1.80 (0.947)	208.830***	1.52 (0.499)	843.109***				
	중학교 (n=3,254)	2.83 (1.063)		(ab, ac, bc)		2.25 (1.104)		(ab, ac, bc)		2.20 (0.987)		(ab, ac, bc)	2.24 (0.994)	1.87 (0.544)	(ab, ac, bc)
	고등학교 (n=3,933)	3.11 (0.974)		2.91 (1.016)		2.49 (0.936)		2.25 (0.949)		2.04 (0.498)					
거주지	서울 (n=1,552)	2.82 (1.103)	4.779**	2.31 (1.188)	0.879	2.21 (1.030)	1.413	2.24 (1.001)	12.639***	1.88 (0.572)	5.240**				
	광역시 (n=3,194)	2.72 (1.112)		2.27 (1.148)		2.16 (0.996)		2.10 (0.971)		1.83 (0.540)					
	시·군 (n=5,098)	2.74 (1.141)		2.26 (1.169)		2.17 (1.011)		2.11 (0.984)		1.84 (0.562)					
가족 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76 (1.114)	9.969***	2.27 (1.161)	16.847***	2.18 (1.001)	7.018**	2.12 (0.975)	6.591**	1.84 (0.543)	20.558***				
	한부모 가정 (n=952)	2.78 (1.128)		2.47 (1.189)		2.24 (1.029)		2.21 (1.001)		1.95 (0.573)					
	조손가정 (n=163)	2.37 (1.207)		2.00 (1.192)		1.93 (1.057)		1.94 (1.004)		1.78 (0.593)					
전체 M(SD)		2.74(1.126)		2.27(1.169)		2.17(1.010)		2.13(0.984)		1.84(0.556)					

*p<.05, **p<.01, ***p<.001

주: 1)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2) 스트레스 영역 12가지 중 4순위까지와 전체 스트레스 평균만을 제시하였음

- 청소년들의 느끼는 스트레스에 대해 백분율로 분석한 결과 아래 <표 10 ~ 표 13>와 같이 학업문제에 스트레스를 느낀다는 긍정 응답률이 63.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진로문제(46.3%), 외모(40.4%), 부모님과의 관계(38.2%) 순이었음.

【표 10】 학업문제(시험, 성적문제 등)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19.8	15.9	32.1	31.4	0.8
성별	남자	100(5,061)	24.3	17.8	30.4	26.5	1.1
	여자	100(4,783)	15.1	13.8	34.0	36.6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1.0	20.2	24.6	12.5	1.6
	중학교	100(3,254)	15.3	16.5	35.2	32.4	0.6
	고등학교	100(3,933)	9.2	12.4	34.7	43.4	0.4

【표 11】 진로문제(장래 또는 미래)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1.3	27.4	30.5	9.8	0.9
성별	남자	100(5,061)	41.5	28.4	22.9	5.9	1.3
	여자	100(4,783)	20.5	26.4	38.7	14.0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56.2	22.1	14.9	5.3	1.6
	중학교	100(3,254)	28.3	30.1	31.2	9.5	1.0
	고등학교	100(3,933)	16.9	28.9	40.6	13.2	0.4

【표 12】 외모(키, 몸매, 생김새 등)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5.4	17.0	27.2	19.1	1.3
성별	남자	100(5,061)	40.7	18.1	24.8	14.7	1.6
	여자	100(4,783)	29.8	15.9	29.7	23.7	0.9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73.6	14.2	7.3	2.9	2.1
	중학교	100(3,254)	32.1	22.1	29.1	15.5	1.3
	고등학교	100(3,933)	12.4	14.8	39.0	33.1	0.7

【표 13】 부모님과의 관계

응답자의 특성		전체(빈도)	전혀 받지 않는다	별로 받지 않는다	조금 받는다	매우 많이 받는다	무응답
전체		100(9,844)	32.2	28.8	30.0	8.3	0.8
성별	남자	100(5,061)	35.1	28.9	27.1	7.9	1.0
	여자	100(4,783)	29.2	28.6	33.0	8.6	0.5
교급별	초등학교	100(2,657)	48.1	24.5	21.4	4.7	1.3
	중학교	100(3,254)	27.4	28.4	33.2	10.2	0.9
	고등학교	100(3,933)	25.5	31.9	33.2	9.1	0.4

7. 초등학생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보다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및 정서조절 수준이 더 높음

-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에 대한 요인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자기효능감의 평균이 4점 리커트 척도 상 2.88점으로 나타나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자아존중감(2.82점), 낙관주의(2.71점) 순 이었음.
-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를 보면, 남자(M=2.78)가 여자(M=2.71)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t=5.606, p<.001$), 교급별에서는 초등학교가 중·고등학교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냈음($F=38.859, p<.001$).
- 가족구성별 분석결과를 보면,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응적 요인 전체에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적응적 요인 전체를 기준으로 볼 때, 양부모가정 청소년(M=2.77)이 한부모가정(M=2.63)이나 조손가정 청소년(M=2.58)들보다 더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음($F=25.346, p<.001$).

【표 14】 개인 내(內) 적응적 심리요인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자기 효능감		자아 존중감		낙관주의		정서조절		적응적 요인(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91 (0.665)	3.383 **	2.83 (0.701)	1.407	2.73 (0.687)	3.680 ***	2.60 (0.687)	11,502 ***	2.78 (0.566)	5,606 ***
	여자 (n=4,783)	2.86 (0.627)		2.81 (0.655)		2.68 (0.647)		2.44 (0.675)		2.71 (0.536)	
교급별	초등학교 (n=2,657)	2.99 (0.698)	50,164 *** (ab, ac)	2.81 (0.781)	7,218 ** (bc)	2.83 (0.744)	61,537 *** (ab, ac)	2.75 (0.727)	239,792 *** (ab, ac, bc)	2.84 (0.628)	38,859 *** (ab, ac)
	중학교 (n=3,254)	2.83 (0.672)		2.80 (0.675)		2.65 (0.672)		2.50 (0.676)		2.71 (0.672)	
	고등학교 (n=3,933)	2.86 (0.580)		2.85 (0.605)		2.67 (0.585)		2.38 (0.624)		2.71 (0.478)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90 (0.634)	15,753 *** (gh)	2.85 (0.667)	31,132 *** (gh, gi, hi)	2.72 (0.651)	12,091 *** (gh, gi)	2.53 (0.677)	13,715 *** (gh)	2.77 (0.541)	25,346 *** (gh, gi)
	한부모 가정 (n=952)	2.77 (0.637)		2.71 (0.671)		2.61 (0.640)		2.39 (0.649)		2.63 (0.533)	
	조손가정 (n=163)	2.78 (0.787)		2.53 (0.776)		2.59 (0.814)		2.47 (0.840)		2.58 (0.681)	
전체 M(SD)		2.88(0.647)		2.82(0.679)		2.71(0.664)		2.52(0.686)		2.74(0.553)	

** $p<.01$, ***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8. 교사관계는 남학생이 학교수업, 친구관계, 학교생활은 여학생이 더 높음

- 학교영역에 대한 성별, 교급별 및 가족구성별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 먼저 성별 분석결과 교사관계에서는 남자(M=2.60)가 여자(M=2.52)보다 더 높았으나(t=4.852, p<.001), 학교수업, 친구관계 및 학교생활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표 15참조). 학교영역 전체에 대한 성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음.
- 교급별에 따른 분석결과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음(F=292.477, p<.001).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M=3.06)가 중학교(M=2.80)나 고등학교(M=2.75)보다 더 높았고, 중학교는 고등학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가족구성별 비교에서도 역시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F=55.478, p<.001). 즉 양부모가정 청소년(M=2.87)이, 한부모가정 청소년(M=2.68)이나, 조손가정 청소년들(M=2.75)보다 평균점수가 더 높았음.

【표 15】 학교영역의 요인별 차이 분석

응답자의 특성	학교 수업		교사 관계		친구 관계		학교 생활		학교 영역(전체)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M (SD)	t, F (Sheffé)	
성별	남자 (n=5,061)	2.73 (0.732)	-4.305 ***	2.60 (0.809)	4.852 ***	3.11 (0.708)	-2.802 **	2.93 (0.670)	-2.460 *	2.84 (0.572)	-1.116
	여자 (n=4,783)	2.79 (0.646)		2.52 (0.823)		3.15 (0.697)		2.96 (0.622)		2.86 (0.531)	
교급별	초등학교 (n=2,657)	2.98 (0.706)	205.700 *** (ab, ac, bc)	2.96 (0.813)	498.525 *** (ab, ac, bc)	3.24 (0.765)	50.153 *** (ab, ac, bc)	3.07 (0.693)	67.640 *** (ab, ac)	3.06 (0.623)	292.477 *** (ab, ac, bc)
	중학교 (n=3,254)	2.71 (0.673)		2.49 (0.801)		3.13 (0.716)		2.90 (0.666)		2.80 (0.560)	
	고등학교 (n=3,933)	2.66 (0.598)		2.35 (0.734)		3.07 (0.637)		2.91 (0.584)		2.75 (0.448)	
가족구성	양부모 가정 (n=8,411)	2.78 (0.666)	37.395 *** (gh)	2.57 (0.810)	24.608 *** (gh, hi)	3.16 (0.681)	38.024 *** (gh, gi)	2.97 (0.629)	43.834 *** (gh, gi)	2.87 (0.535)	55.478 *** (gh, gi)
	한부모가정 (n=952)	2.59 (0.666)		2.38 (0.799)		2.97 (0.736)		2.79 (0.673)		2.68 (0.539)	
	조손가정 (n=163)	2.69 (0.818)		2.62 (0.886)		2.95 (0.925)		2.76 (0.853)		2.75 (0.762)	
전체	M(SD)	2.76(0.667)		2.56(0.817)		3.13(0.703)		2.94(0.648)		2.85(0.553)	

*p<.05, **p<.01, ***p<.001

주: a=초등학교, b=중학교, c=고등학교, d=서울, e=광역시, f=시·군, g=양부모가정, h=한부모가정, i=조손가정

NYPI YOUTH REPORT 과월호 안내

- 제1호 경제위기와 빈곤
- 제2호 다문화와 탈북청소년
- 제3호 글로벌 환경 변화와 청소년
- 제4호 글로벌 인재와 청소년
- 제5호 청소년 인권
- 제6호 청소년들의 정보이용 현황
- 제7호 청소년들의 핵심역량
- 제8호 청소년들의 진로 및 직업
- 제9호 청소년들의 활동 및 문화
- 제10호 다문화 가정 및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역량강화
- 제11호 멘토링과 청소년 사회 참여
- 제12호 창의적 체험 활동
- 제13호 소년원 교육 효과성 개선 방안
- 제14호 청소년 활동 지역네트워크 구축
- 제15호 청소년 인터넷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
- 제16호 위기아동·청소년 긴급구호 체계 개선방안
- 제17호 초·중·고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 제18호 방과후돌봄서비스 실태와 개선방안
- 제19호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 조사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자료집 총 10권 발간 안내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 :
외국의 창의적 체험활동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 :
1부 일본의 「종합적 학습」 가이드 “요코하마의 시간”
2부 일본의 「청소년체험활동전국포럼」 보고서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II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스포츠활동」 지도 매뉴얼
(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V :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교육 매뉴얼 : 생활권수련시설 지도자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 :
청소년민주시민 교육 매뉴얼(중·고등학생용)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 :
학교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교과(지리)수업연계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VIII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 : 핵심역량-사고력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I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 : 핵심역량-사회성
- NYPI 창의적 체험활동 시리즈 X :
청소년 수련관 기반 지도매뉴얼 III : 핵심역량-자율적 행동

NYPI 2010 한국 아동·청소년 전국조사

- 한국 청소년 창의적 체험활동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핵심역량진단조사
- 한국 청소년 건강실태조사
- 한국 청소년 안전(보호)실태조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 세대간 가족의식비교조사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이 책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용하려면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비매품>

본 책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www.nypi.re.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2011 기본연구과제

- 청소년활동시설 평가모형 개발연구 II
- 「창의적 체험활동」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 청소년수련시설 인증 방안 연구
- 지역사회중심 청소년 공부방 운영 활성화 방안 연구
- 가족구조 변화에 따른 아동·청소년 생활실태 분석 및 대책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종합통계시스템 구축 연구
-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종단조사 II
-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가정 아동 지원방안 연구 II
-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II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연구 I
- 청소년 국제교류정책의 현황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 청소년 도덕성 발달 검사 도구 표준화 연구 I
-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 II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 I
-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한국 아동·청소년 통계데이터 아카이브 콘텐츠 구축사업 II

